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후 (3부) 10시
오후 (4부) 12시
금요일예배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4월 27일 (제739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주일에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지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아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안전불감증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곧 점검’이라는 말을 나는 귀가 따갑게 했다. ‘철저히 점검한 자는 철저히 성공할 것이요, 철저히 점검하지 않는 자는 망하기로 작정한 자’라는 말도 늘상 해왔다.

이번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를 대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아직 나레를 퍼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것들, 생때같은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 다행히 무사히 구출되었지만 아침까지 같이 있던 친구들을 잃은 아이들... 정말이지 역장이 무너지고 화가 치민다.

올 2월 경주 리조트에서 대학 새내기들이 목숨을 잃은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왜 우리나라는 후진국형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대한민국이 안전불감증을 심하게 앓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출항할 때 짙은 안개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면 당연히 연기했어야 했다. 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할 판에 경력 1년도 안된 3등 항해사가, 그것도 자연된 시간을 벌려고 점검되지 않은 항로를 택하여 그 큰 배를 몰았다. 말이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안전불감증이고, 인재를 자초한 것이다. 설마가 사람 잡은 꼴이니 장탄식이 나온다. 우리는 많은 위험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만큼 더 대비하고, 그만큼 더 점검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태와 작업들을 지양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점검 또 점검해야 한다. 국가적인 일은 물론이요, 교회와 기업, 그리고 개인적인 일도 그렇다. 더 나아가 자신의 영혼상태를 늘 점검해야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점검부재현상은 사고의 원인이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과레나스(Guarenas) 집회를 배설한 그레고르(Gregor) 목사는 성공적인 집회를 마치고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했고, 목사님의 그 능력을 저에게 주고 가셔야 합니다. 사실 야외집회가 불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오히려 속으로 패재를 붙잡습니다. 이는 온전히 나를 위한 집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라구나(Laguna) 선교사가 그 말을 받아 이렇게 말했다.

“엘리사는 제 몫입니다. 목사님의 능력을 이어받을 사람은 처음부터 저입니다. 그건 탐내지 마세요.”

있는 과레나스(Guarenas) 와서 자고, 또 다시 이튿날 공항으로 간다는 말에 목사님은 공항 근처로 숙소를 옮기라고 지시하셨다. 아무리 경찰들이 에스코트를 해준다 해도 러시아워에 움직이려면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급히 방을 구하려하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루이스 목사가 지혜를 발휘했다. 가르시아 주지사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러자 바로 공항 근처에 방을 구할 수 있었다. 목사님은 루이스 목사가 내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며 크게 기뻐하셨다. ‘영향력 있는 자를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세미나의 설교를 루이스 목사는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이 없다. 오직 집회가 성공해야 한다.”

막상 그들을 만나 실상을 들어보니 떠돌던 말과는 많은 괴리가 있었다. 돈 많은 스폰서가 따로 있다는 것은 낭설이었고,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스폰서를 구하고, 세미나에 참가비를 받아 충당하려는 계획이었다. 목사님은 그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걱정하는 게 있다. 나를 불러 집회를 하고 나서 적자로 인해 시험 드는 일이다.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집회를 배설한 사람이 진정 그날을 소망하며 돈에 상관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했다는 기쁨만으로 만족한다면 야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은 현실인 것이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성령의 대역사가 나타난 베네수엘라 과레나스 집회)

라구나의 발언에 모두가 함께 웃었지만, 사실 소름 돋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야외집회가 취소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 믿은 그레고르 목사나, 목사님의 능력을 받을 사람은 오직 자신이라고 믿는 라구나 선교사나 그 믿을 자체가 놀랍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목사님도 그 부분을 매우 높이 평가하셨다.

“이것은 아무나 갖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정말 대단하다.”

집회 후 이튿날 주일에배를 위해 카라카스(Caracas)로 이동했다가 다시 숙소가

공항 근처 숙소로 옮기자마자 9월의 발렌시아(Valencia) 집회를 준비 중인 인사가 찾아왔다. 대형집회를 많이 해본 사람이고, 석유제벌을 끼고 있어 최소한 10만 이상의 대형집회를 열 수 있고, 목사님을 최고 일류로 대접한다는 말들이 이 선교사를 통해 들려오곤 했었다. 목사님은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을 자랑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곳만 해도 지난 1월에 뭐라고 했었는지 아는가? 바르가스 집회보다 더 큰 집회를 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야외집회가 불허되지 않았던가?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나를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그런 일엔 관심

다. 따라서 집회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나는 기도할 수 있는 방 하나에 하루 두 끼만 먹여주면 된다. 나나 우리 일행을 대접하는데 돈 쓸 생각 하지 말고, 집회 성공에만 집중해주기 바란다.”

언제 우리가 내일 일을 알고 움직였던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에 이 길은 15년째 가고 있는 것 아니던가! 뚜렷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는 자만이 단 열매를 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enry Han

henry8829@naver.com



엘리사처럼 목사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라구나 선교사



오는 9월, 발렌시아 집회를 요청하러 찾아왔다



그레고르 목사(왼쪽)와 루이스 목사(오른쪽)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1:24~44)

충격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난다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이 미국 여자프로 골프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골프에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골프가 대중 스포츠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박세리 선수 때문입니다. 1998년, 국민이 다 힘들어 하던 IMF 시절, 박세리 선수가 미(美) LPGA투어의 메이저 타이틀인 맥도널드LPGA챔피언십에서 투어 데뷔 첫 승을 올린 것입니다. 골프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 선수가 챔피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우리나라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아! 저 분야도 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의 손에 골프채를 쥐여줬고, 그것이 오늘날의 골프신화를 써낸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지금 피겨 스케이트의 김연아 선수나 리듬체조의 손연재 선수, 그리고 수영의 박태환 선수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부모들의 열성이 곧 제2의 김연아, 손연재, 박태환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격이 있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제 친구 녀석 하나가 제게 죽을 다음의 세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신나게 살던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달려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진짜로 죽

님의 부활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삼 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실감하지는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상실감에 빠져 다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나시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참 제자가 되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과정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탈습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인



총회장 이초석 목사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만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시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울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죽어 뱃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온몸을 싸매어 무덤 속에 넣어둔 자가 살아났으니 기할할 노릇 아닙니까? 이것을 본 많은 자들이 어찌 입을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뛰어 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공부 잘하는 짝꿍을 보면 충격을 받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성형이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연예인들이 성형 후에 너무 예뻐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나도 하자'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충격을 받고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극제가 되어 일어나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깨닫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늘 공부하느라 힘든 어린 것들이 모처럼 제주도에 간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이 어린 것들 300여명이 생사를 알 길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고 구조작업을 하고 있지만, 전혀 진척이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가족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국민 전체가, 아니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충격으로 인해 제발 대한민국이 변화했으면 합니다. 안전불감증이 사라지고, 부정이 사라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모든 행정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호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재발하

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린 것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평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젊은 이들의 해병대 입대가 늘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들에게 충격이었고, 그 충격이 젊은이들의 잠재된 애국심에 불을 땀겼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이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찌라"(살전5:3-6).

이는 단일한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입니다. 살다보면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단일한 신앙에 충격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단일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고통 속으로 떨어질까 봐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금 편하고,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은 이웃나라를 들어서 충격을 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충격에 무반응은 죽은 것이다

왜 그러시냐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하신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신앙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심장충격기로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지요. 바로 이런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몇 번을 해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판단하듯, 하나님의 충격이 통하지 않는 자는 이미 버려진 자, 영원한 죽음에 빠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이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뇌사상태는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이는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보고 충격을 받는지, 아니면 그저 옛날이야기처럼 무덤덤한지 당신의 상태로 진단하시면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도바울과 메삭, 그리고 아벳노고,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니엘의 믿음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한 스테반의 사랑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구나'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은 충격 중의 충격입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당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유혈을 뿜은 것처럼 당신으로 인해 당신의 가정, 당신의 직장, 당신이 속한 단체, 당신의 나라가 변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격은 에너지를 내어 움직이고 변화하게 한다

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나가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펴고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 충격으로 인해 저는 성경을 파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충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더욱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요14:12). 충격으로 인해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충격은 저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파장을 낳아 가족들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절까지 지어놓은 우리 집안에서 제 동생 둘이 목사가 되었고, 여동생은 전도사, 그리고 아들과 조카까지 주의 종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충격이 에너지를 낳고, 그 에너지가 파장을 타고 나아가 움직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이 변화를 낳습니다. 예수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감동의 글이라 퍼왔습니다::

학습효과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다.
“충격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충격을 에너지 삼아 뛰는 사람이 있다.”
전자가 지극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후자는 매우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다. 외부자극에 항상 아메바처럼 단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보아도 역사인식의 차원에서 국민성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참사들을 보면 늘 똑같은 말이 되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고는 철저한 인재(人災)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메뉴얼에 따른 조치만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였다는 말이다. 대형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술하게 접한 멘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 한 차례의 개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는 진정한 역사인식의 부족이다.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을 토대로 변화해야 하는데 전혀 학습효과가 없다. 사고당시에는 온 나라가 벌집을 쑤어놓은 듯 난리법석을 떨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만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도, 이를 감시해야 할 국회도, 언론도, 나아가 일반 대중조차 새로운 이슈에 매몰되고 만다. 문제를 인식했으면 그 문

제가 개선될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추적 감시하는 국회, 언론, 나아가 국민 다수의 절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마땅하다. 너무나 참담한 사고에 온 국민이 오열하고 탄식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히 말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미 당한 일을 되풀이 수는 없다. 국제적 위신도 말이 아니고, 사고당사자나 가족들의 참담함에 할 말을 잃고 함께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번 사고를 경험하며 저만 살겠다고 나온 부류가 있는가 하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영웅들이 있다. 과연 이 경험은 어떤 학습효과를 낳을까? 어쨌든 살고 불 일이라는 생각으로 기운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정말 이 나라가 전통과 명예를 중시하는 나라로 성장해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눅9:24). 무엇이 진정으로 사는 길인지 되새기게 하는 가르침이다. 우리의 삶을 단순히 육체적인 삶과 죽음으로만 나누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여기는 단순한 사고로써는 결코 이를 수 없는 경지이다.
이제는 정말 변화해야 한다. 부디 이 충격이 이 나라에 새로운 시민의식이 형성되는 역사적 에너지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아름다운 구제

캘리포니아 유학중인 어느 한국 학생의 실제 이야기이다.
학기 등록 때마다 고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를 받을 때면, 그는 늘 부모님께 죄송스런 마음이었다. 부모님의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그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가 요세미티 공원 나뭇가지를 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이다. 그는 한 폰이라도 아끼기 위해 점심을 굶었다. 점심 값이라도 아끼고 싶었다. 그는 점심시간이 되어 다른 미국인 일꾼들이 점심식사를 할 때면, 차마 자존심 때문에 굶는다는 소리를 못하고 위염으로 점심을 먹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 때문이라며 나무 밑에서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는 척 했다.
그런데 동료 하나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염 때문이 아니라 돈을 절약하기 위해 배고픔을 참는다는 것을. 어느 날 미국 동료는 ‘학생이 얼마나 배고플까, 어떻게 저 사람 자존심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 샌드위치를 좀 나눠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에이 미련한 마누라,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샌드위치를 이렇게 많이 싸 준거야? 다 먹지 못하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겨 가면 자기 성의도 모른다고 잔소리 할 텐데... 에이 한국학생 자네 날 좀 도와줄 수 없겠나?”

보다시피 이 샌드위치를 나 혼자선 도저히 다 못 먹을 것 같으니 자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는 몇 번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척 미국인 동료가 주는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 날 이후부터 그는 미국인 인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샌드위치를 얻어먹게 되었다.
그렇게 돈을 모아 다음 학기 등록을 한 후 다시 방학이 되었을 때, 작업시즌 끝날 때까지 자기에게 샌드위치를 공짜로 나눠준 고마운 미국인 동료에게 인사하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마을로 찾아가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이 그 사람을 지금 작업 나가서 집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 그분의 부인이라도 뵙고 인사를 드리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경비원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이라니? 그 사람은 3년 전에 부인을 잃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독신으로 혼자 사는데...”
그제야 한국학생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련한 우리 마누라, 어떻게 다 먹으라고 샌드위치를 이렇게 많이 싸 준거야?” 그 말은 모두가 나의 자존심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샌드위치를 나눠주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나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태복음 6:4).

예수중심편집실

::To Be Succeed::

포기하지 않으면

‘동양의 파바로티’라 불리는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 조용갑 씨(45). 그는 2000년 이탈리아에서 라보엘 주역으로 데뷔한 이래 300차례 이상 유럽의 오페라 무대에 섰으며, 콩쿠르 우승만 30회 가까이 차지한 실력파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다.
우리나라 최 서남단 가거도, 지독하게 가난하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고 자란 어린 용갑에게 꿈은 돈을 벌어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상경하여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 거친 인부들에게 망치로 얻어맞으며 옮기도 많이 옮겼던 용갑에게 두 번째 꿈이 생겼다. 다른 친구들처럼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이었다. 형편 때문에 아

간 고등학교에 다녀야 했지만 공부를 해야겠다는 꿈은 새벽 4시에 신문배달과 유유배달로 시작되는 고단한 일상도,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권투선수 생활도 참고 이기게 했다.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담아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곤 하던 시절, 성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 이태리로 유학을 가보라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그의 가슴은 또 한 번 험하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한다. 하루 벌여 하루를 살아야 했기에 그 꿈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후 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마침내 기적적으로 후원자가 나타나 이탈리아의 명문 산타 체칠리아에 입학할 수 있었다. 유학 도중 IMF가 터져 많은 유학생들이 속절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던 어려운 시절에, 개와 고양이가 먹

는 사료용 스파게티를 먹으며 버틴 이야기, 등록금 외에는 한 푼도 없었을 때 콩쿠르 우승 상금으로 지불해야지 하고 호텔에서 배장 좋게 자고 먹고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그의 힘든 시절을 곁에서 보아온 지인들은 말한다. 그의 인생은 7전 8기, 투지 넘치는 권투선수의 그것과 닮아있다고. 그리고 늘 깨끗하게 고난을 긍정으로 승화시키는 그 모습에 오히려 힘을 얻었다고 말이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끝내 그것을 이루는 이는 인내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미국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토미 오마산이 그녀의 책 ‘참신기도의 능력’에 기록한 일화입니다.
1970년대 말 어느 수요기도회 때 주어진 기도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해 주세요.”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고, 또 나라 밖의 문제들까지 기도하는 것은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도 웬지 공허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의 교회에서는 종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연설을 통해 “베를린 장벽을 제거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의 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제목들을 놓고 더욱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베를린 장벽은 양국 간의 전쟁이나 외교적인 분쟁 없이 평화적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철의 장막과 공산정권이 와해되는 기적을 경험한 그녀는, 이 사건 이후로 기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화통일 기도 성회’는 이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이면서, 동시에 우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위대한 역사의 순간에 동참합시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b@naver.com



::내가 매일 기쁘게::

::생각해봅시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경,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그 때에는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3백여 명과 성인 150여 명이 탑승 중이었다고 한다. 사고 당시 한 학생이 엄마에게 보낸, "엄마 말 못할까봐 문자 보내 놓는다.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국내 누리꾼은 물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가 더 끔찍하고 가혹한 이유는 실종자의 대다수가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전교생 3백여 명 중에서 2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종되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동고동락하며 우정과 추억을 나누던 친구들이 실종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밖에 없다. 진실로 진실로, 모두가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꼭 생존자가 나타나기를...

그런데 온 맘과 뜻을 다해 기도를 해야 할 것은 실종자의 귀환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돌아오지 않은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도 찢어지겠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의 갑작스런 사고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 만... 내가 사고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던 이유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안고 가야 할 죄책감과 채무감 때문이었다.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생각이 그들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우려했던 대로 1차 구조자에 속해 있었던 해당 학교 교감이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살았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낄 새도 없이 자신을 조여 오는 죄책감을 살아남은 자들이, 특히 그 어린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걱정된다. 1차 구조자들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

다. 생사를 모르는 이도 있는데 밥 좀 못 먹는 게 대수냐고 손가락질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존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생채기가 났고,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애도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오래 전 그 사건처럼 기억의 저편으로 지워질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워질 수 없는, 그래서 채무감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할 사고일지도 모른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한다. 살아남은 자들의 안병과 평안을 위해서 말이다. 상처가 잘 아물어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남은 자신의 삶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눈부시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전준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면 양젓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일확 천금을 바라며 어느 날 갑자기 황제하기를 원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소설 '홍부와 놀부'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지만,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로 인해 한순간에 홍부의 집이 부자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래동화 도깨비 이야기에도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하는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 전 로또복권의 열풍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은 모두가 공짜인데도 정작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밝게 빛나는 태양, 신선한 공기, 그리고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셨습니다. 다만 영리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자신이 주인인 양 돈을 받고 빌려주고 팔아먹는 세상이 되었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모든 것이 공짜였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죽을 뒤에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도 아무런 값없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에 가려고 인간됨을 쓰

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이며, 세상의 소중함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2:8-9).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면 그들의 떡에 불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낙인이론

수업시간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8살 짜리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고,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형적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였습니다. 걱정이 된 엄마는 딸아이를 심리상담가에게 데려갔습니다. 20여 분간 엄마와 상담을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도 이 아이는 불안하며 긴장되고 산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담가는 흔자 있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할 것을 엄마에게 제안했고, 그리고 방 밖으로 여자아이를 내보냈습니다. 복도에선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그 음악에 여자아이가 몸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에 선생님도 엄마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산만한 게 아니고, 타고난 댄서예요."

이 꼬마아이가 자라 뛰어난 발레리나가 되었고, 그 후 안무가로서 '캣츠'와 '오

페라 유령' 등 뮤지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만든 '질리언 린'의 이아 기입니다.

만약 아이의 가능성을 장애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둬 낙인이론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낙인이론'이란 어떤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일탈행위자로 낙인을 찍어 당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더 저지르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청소년이 일탈행위를 해서 비행청소년이라는 명칭이 붙으면 주위 사람들은 그를 달리 대하게 되며, 그 부정적인 인식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쳐 마침내는 더 많은 일탈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주위사람이 변하지 않거나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며 낙인이론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인으로 낙인찍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게 될 우리들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롬5:8). 여호와 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인애는 끊이 없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 시간을 요할 뿐 포도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더딘 것 같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붙어 있으세요. 실패와 좌절을 거름으로,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언젠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박선인

sunin91@naver.com

그리스도의 수난(受難)

그리스도라 하는 나사렛 예수. 그의 생애는 불가사의한 것들로 꼭 차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의 생애를 혹자는 전설이라고도 하며, 혹자는 그를 성인이라 추앙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예수의 자기선언은 이렇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요6:35), "나는 생명의 빛이다"(요8:1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이다"(요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이다"(요14:6),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요15:1).

놀랍다면 놀랍고 황당무계 하다면 실로 황당무계한 얘기다. 이런 확실히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다. 그를 단순히 종교적 천재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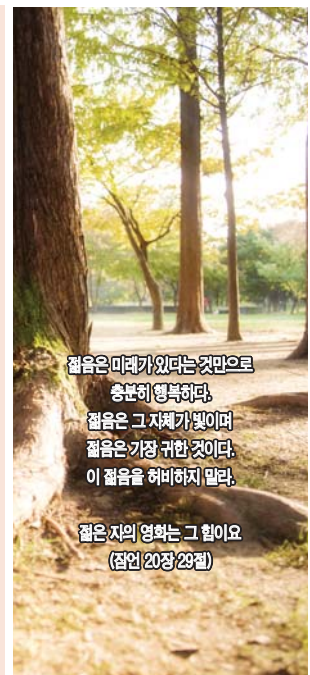
성경은 계속해서 그의 죽음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이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했다고 증거 한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아니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면서 동시에 사실일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나 아니냐는 보통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거짓말 같으면 별 문제 없으리라. 그러나 만약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실로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경은 그에 대한 신(信), 불신(不信)의 여부가 곧바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된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나사렛 예수의 실존과 그 생애의 사실 앞에서 양단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만 한다. 그를 덮어놓고 성인이라 추앙할 필요는 전혀 없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 스스로가 생사존망의 열쇠를 쥐고 있다.

당신은 그를 어떻게 판단하려는가? 그는 진정 당신의 구주(救主)인가?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심리칼럼::



절음은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절음은 그 자체가 빛이며
절음은 가장 귀한 것이다.
이 절음을 허비하지 마라.

절음, 지의 영화는 그 힘이다
(절음 20장 23절)